

성신금속

독보적 금형열처리기술에 최고의 장비를 더한 성공노하우



성신금속
문한규
대표

대구에 자리잡고 있는 성신금속은 단조금형과 방산부품 열처리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제2 공장의 증설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장비로 생산라인도 새롭게 구축했다. 소재의 재질과 용도별 공정 기술의 노하우로 고객이 원하는 열처리조건을 찾아내 고품질의 만족을 이끄는 성신금속. 금형열처리 분야에서 앞선 열처리기술로 글로벌 혁신 기업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의 성공노하우를 들어본다.

취재 · 글 / 에디썸(edsome@edsome.co.kr)

외길 운명, 열처리사업에 바치다

열처리기술은 금속재료, 기계부품, 금형공구 등의 기계적 성질을 가열과 냉각을 반복해 변화시키는 것으로 재료의 내마모성, 내충격성, 사용수명연장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1993년 설립된 성산금속은 진공 및 금형열처리 전문업체로 단조금형열처리와 일반기계 부품에 대한 질화열처리, 특수소재를 사용하는 방산부품 등 대구를 대표하는 열처리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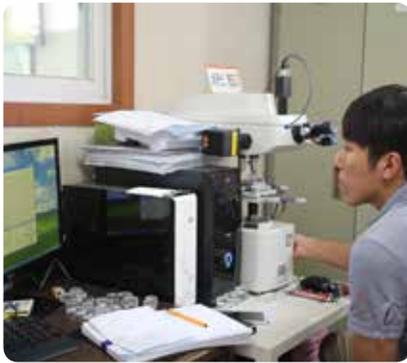
문한규 대표 또한 열처리공장이 자신의 외길 운명이라 느끼며 40여년 가까운 세월을 현장에서 기술을 체득하며 얻은 노하우로 사업의 토대를 구축했고, 지금은 열처리 애로기술의 해결사로 그를 찾는 이 또한 많아진 열처리박사(?)가 됐다.

탄탄한 기술력과 정직한 품질, 이를 떠받치는 국내 최고의 장비등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성장동력이 된 이 회사의 대표기술은 금형열처리분야다.

“열처리의 고유기술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내리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적합한 열처리 조건을 고객과 함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문 대표는 “품질하면 성산금속이란 호평을 받기까지 열처리 프로세서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하며 “열처리 프로세서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품질 만큼은 소비자들에게 100% 인정받자는 품질관리 전략이 성공으로 이어져 방산분야까지 열처리사업을 확장할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다.

당사의 소규모 생산캐파로는 물려드는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치산업인 열처리산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문 대표는 과감히 결단을 내렸다.

최근 제2 공장을 1공장 인접한 곳에 신축하여 국내에서 유일한 열처리 최신 장비로 생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제2공장의 연구소에서는 R&D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글로벌 금형열처리기술로 승부하다

성산금속은 진공 설비와 질화 설비를 이용한 단조금형열처리와 일반 기계부품등의 열처리 보유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인코넬, 모넬, 스텐레스 등 특수 소재를 사용하는 방위산업부품의 특화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금형열처리분야에서는 독보적 기술을 자랑한다. ‘열간단조 금형수명 보장 열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R&D를 통해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도록 각종 품질인증과 특허도 준비해 놓았다.

“열처리기술은 본질적인 기술측면에서 보면 재료기술”이라고 말하는 문 대표는 “크기와 재질, 용도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할수 있기 때문에 열처리 규격을 꿰뚫고 있는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한다. 금속 등 각종 소재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계통을 이해해야만 가능한 사업군인 것이다.

“그러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열처리는 설비기술로도 볼수 있는데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노하우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구사할수 있는 설비가 따라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장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위해 성산금속에서는 가압 능력 12BAR(국내 대부분 업체는 6BAR이하)인 미국 입센사의 진공로를 도입, 금형 열처리와 여러 특수 소재 열처리에 활용함으로써 품질과 생산성 면에서 타업체와 차별화되는 열처리경쟁력을 확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문 대표의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국내에서는 유일한 장비가 될 고품질과 빠른 납기 대응의



독일산 15BAR 진공열처리 장비의 추가 설치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ERP시스템은 생산과 공정 및 관리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사의 요청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열처리업계 혁신리더의 경쟁력 보여준다

열처리업계는 임가공이 특징으로 수주 상황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달린다. 임가공은 열처리의 품질, 납기, 기술적 조업 등 고객만족이 우선 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 구축과 유지로 고객들의 요구에 대한 만족을 실현시키는 맞춤형경영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 투자는 물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품질을 기본으로 거래 기업과의 상호 신뢰와 원활한 기술협의를 이끌어내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열처리를 포함한 뿌리산업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초산업으로, 말 그대로 뿌리가 튼튼해야 국가경쟁력을 유지할수 있다.

뿌리산업은 반드시 있어야하는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열처리는 산업현장이 열악하고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업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으며, 세대교체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영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문 대표는 지적한다.

“열처리 업종은 임가공으로 물류시간과 비용이 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이 있고 열처리 수요산업의 기술고도화에 따른 품질보증 설비와 인력의 고도화가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규모 기업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R&D 기능을 담당하는 본사와 수요업체 인근에서 직접 열처리를 하는 체인 형식의 열처리 그룹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앞선준비’에 대한 구상도 내놓았다.

단조금형과 방산부품 등이 수직 공정의 열처리단계를 거치며 장수명·고품질의 제품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성산금속의 열처리





기술력은 국내에서 강력한 입소문 마케팅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당사의 금형열처리기술은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도 증명해 보인바 있다. 기업성장의 숨은 공신인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기술개발만이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의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학계와 연구소 전문가의 자문과 산학연협력 기술개발과 제를 수행하면서 R&D의 영역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열처리노하우와 이를 받쳐줄 최고의 장비로 향후 글로벌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것이 문대표의 바람이다. 그 바람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F**

